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신 미(Mi Sihn)¹⁾

전성희(Seong Hui Jeon)²⁾

유미숙(Mee Sook Yoo)³⁾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s,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2010 was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del is appropriate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significant path based on the validation procedure. According to the model, the social relationships have some degree of influence upon self esteem which then goes on to have a subseque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hich in turn have a further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Social relationships also have a direc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and self esteem has a direc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paper concludes with an outline of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for future studies on this subject.

Key Words :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자아존중감(self-esteem),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청소년(adolescents).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자료를 활용한 논문임.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졸업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수료

³⁾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ihn Mi, College of Human Ec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2 Hyochangwon-gil,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Email : sinnmi@sm.ac.kr

I. 서 론

관계는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에게 중요한 문제이자 목표가 되기도 할 만큼 주요인으로 간주된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며, 부모나 친구 그리고 이웃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원만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자기정체감을 형성해가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을 하는 등 정신적 변화가 많은 시기(Whaley & Wong, 1997)로, 이때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보다는 학교나 학원 등 가족 밖의 여러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부모-자녀관계 이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에게 있어 독특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Park(2003)은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발달과업 수행을 돕거나 지지하는 체계이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으며, Bronfenbrenner(1995)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체계, 즉 가족, 이웃, 학교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역동적 상호작용을 한다면 청소년의 지각, 성격 및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그들이 접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라는 관계의 맥락에서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이나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관계 경험은 사회 구성원이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강력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Ryff & Singer,

2000; Salovey, Rothman, Detweiler, & Steward, 2000). 특히 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지지 경험은 안녕(well-being) 및 자이존중감(Baumgardner & Crothers, 2009; Procidano, 1992), 삶의 질(Rudnick & Kravetz, 2001), 행복(Jeon, Sihm, & Yoo, 2011) 및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yers & Diener, 1995).

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경험은 청소년기의 적응 여부를 설명하는 학교생활적응에도 큰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Han, 1996). 여기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제로(Kye, Lee, Kim, Park, & Yoo, 2001),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적 경험을 제공해주고(Smilansky, 2002) 향후 성인기까지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와 함께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면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은 이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제이며 적응의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적응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나, 현재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2005년 57,148명, 2006년 70,796명, 2007년 73,494명, 2008년 71,769명, 2009년 61,910명(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0)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여 우려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학교부적응이라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문제접근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대한 기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등을 겪으면서 스트

레스가 누적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자신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한다(Hyun, Lee, & Park, 2003; Lee, 2003; Sihm, Jeon, & Yoo, 2010). 이로 인해 만족스러운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며, 낮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Kim & Park, 2004).

더욱이 Lee와 Kwak(2011)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삶의 만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되기도 한다(Mun, 2002; Shek, 2002).

최근 긍정심리학의 출현을 통해 심리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 삶의 만족,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극대화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특징이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본다면, 청소년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문제점이나 병리적인 특성을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청소년의 긍정적인 힘과 적응유연한 능력을 찾아내어 강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의 적응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만족은 복잡한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삶의 만족은 어떤 결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청소년의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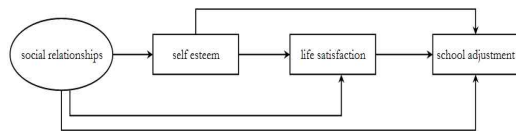
(Fujita & Diener, 2005). 따라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인들을 선별하자면 사회적 관계와 같은 관계요인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내적 신념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 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여러 문화권에서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고(Diener & Diener, 1995),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변인임(Kim, Jang, Cho, & Cha, 2008; Myers & Diener, 1995)을 주장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는 기반이 되거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의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자기의 총체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Swann, Chang-Schneider, & McClarty, 2007)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특히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Cha, 2001; Diener, 1984; Kim & Son, 2006; Koo, Park, & Jang, 2006; Lee, Lee, & Yang, 2005),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Do, 2008; Lim & Lee, 2007)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결국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있어 다른 어떤 예측변인보다 강력하며 그만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요인에 대해 인구학적 변인, 개인내적 변인, 대인간 변인을 이미 다루었으나 이렇게 관련성 연구가 주류를 이루더라도 각각 별개의 차원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그 결과, 삶의 만족과 개인특성(Kim & Hong, 2007; Koo et al., 2006; Lee &

Byun, 2007; Park, Kim, & Min, 2002), 삶의 만족과 개인의 내적 특성과 같은 개인적인 자원(Diner & Seligman, 2002), 삶의 만족과 대인간 특성(Kim & Park, 2004; Ma & Huebner, 2008)은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관계요인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개인내적 특성으로 설정하여 이 관계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동시에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까지 어떠한 관계경로를 나타내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경로를 탐색하면서 변인들의 선행관계를 밝혀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응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때 어떤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선행해야 하는지 구상할 수 있다. 앞서 밝힌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Figure 1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이 모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로써 초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개인내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Figure 1> Hypothetic model of study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의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자료 가운데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2,351명의 남녀청소년을 최종 표본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2,351)

	Sex		Age(Year)			
	Male	Female	16	15	14	13
N	1,177	1,174	4	17	2,064	266
(%)	(50.1)	(49.9)	(0.2)	(0.7)	(87.8)	(11.3)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설문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요인들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관계이다. 사회적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4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인에는 총 46문항을 사용하였고, 전체 신뢰도는 .869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이다. 이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는 .737로 나타났다. 셋째, 삶의 만족이다. 이는 총 5문항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즐거움이나 행복함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22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이다. 여기서는 학교 성

적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 청소년 자신의 수업 참여와 이해 정도를 묻는 내용과 학교생활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된 신뢰도는 .848 이었다.

모든 문항들은 Likert식 4점 방식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친구, 선생님, 이웃과 친밀하게 느끼는 것,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 학교생활에 적응함을 의미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부정문항에 대해 역채점 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표시(R)를 하여 역채점 문항임을 밝혔다. 설정한 변인들에 대한 설명은 Table 2에 나와 있다.

3. 자료 분석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탐색하였다.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χ^2 검증,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를 살펴보고, SPSS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Pearson 상관계수, 신뢰도 등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 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에 따라 분석에 사용한 변수가 그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able 4의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면, 한 변인 간 단순상관이 .8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낮은 것(Kim, 2010)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LI, CF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다(Sihn & Yoo, 2011).

<Table 2> Construction and reliability of data

Factors	Number		Reliability
Social relationships	46	4 sub-factors for relationships of parents, friends, teacher, neighbor	.869
Parents	21	Subjective evaluation for perceived their parents monitoring and intimacy with their parents	.855
Friends	14	Subjective evaluation for perceived intimacy with their friends	.734
Teacher	5	Subjective evaluation for perceived intimacy with their teacher	.832
Neighbor	6	Subjective evaluation for perceived intimacy with their neighbor	.723
Self-esteem	6	Subjective evaluation for perceived image about their own self	.737
Life satisfaction	5	Subjective evaluation for perceived happiness of their life	.822
School adjustment	8	Expectations for positive influence of studying and attending classes	.848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by location

Factors	Mean	SD	Skewness	Kurtosis
Social relationships	128.053	15.953	.073	.104
Parents	57.775	9.146	-.109	.242
Friends	39.785	4.814	.058	.039
Teacher	13.542	3.334	-.156	-.119
Neighbor	16.967	3.427	.066	-.058
Self-esteem	17.394	3.174	-.121	-.150
Life satisfaction	14.697	2.319	-.069	.228
School adjustment	23.429	4.133	-.421	.555

<Table 4> Correlations of social relationships,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1-2	1-3	1-4	2	3	4
1-1	.255	.228	.232	.343	.314	.275
1-2		.293	.248	.406	.400	.398
1-3			.333	.235	.316	.446
1-4				.241	.304	.293
2					.650	.357
3						.395

*** $p < .001$.

Note. 1 Social relationships[1-1 parents, 1-2 friends, 1-3 teacher, 1-4 neighbor], 2 self-esteem, 3 life satisfaction, 4 school adjustment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때 적합도의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TLI 지수는 .90 이상을 좋은 모형의 적합도로 해석하나 간혹 .95 이상(Hu & Bentler, 1999)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RMSEA 지수는 .05 이하(Brow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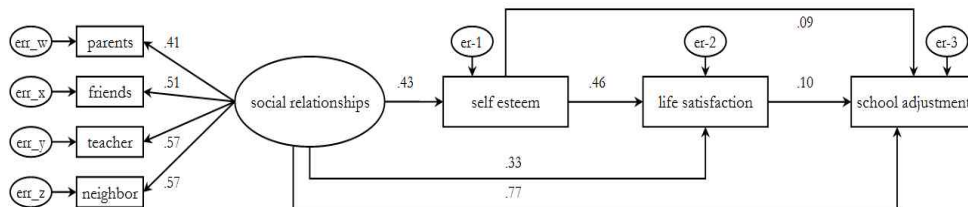
<Table 5> Fit indices for model

χ^2	df	p-value	TLI	CFI	RMSEA
44.453	8	.000	.965	.990	.044

Cudeck, 1993)를 좋은 적합도로 평가하나 .06 이하(Hu & Bentler, 1999)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있어(Sihn & Yoo,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모형이 좋은 모형으로 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관계, 자기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Figure 2와 같은 모형을 통하여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은 연구모형에서 보았던 경로들에 대한 추정계수값이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와 자아존중감간 경로가 .43,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간 경로가 .46,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 간 경로가 .10으로 유의수준 .01과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Figure 2> Measurement model

<Table 6> Parameter estimates of model

Parameter	Unstandardized values	Standardized values	Error	t
Social relationships → Parents	1.000	.405	-	-
Social relationships → Friends	.662	.513	.044	15.003***
Social relationships → Teacher	.514	.571	.033	15.495***
Social relationships → Neighbor	.525	.569	.037	14.041***
Social relationships → Self-esteem	.370	.433	.027	13.565***
Social relationships → Life satisfaction	.197	.332	.018	10.930***
Social relationships → School adjustment	.854	.766	.066	13.025***
Self-esteem → Life satisfaction	.321	.461	.014	22.579***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111	.085	.038	2.935***
Life satisfaction → School adjustment	.180	.096	.061	2.943***

** $p < .01$. *** $p < .001$.

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 간 경로가 .33,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간 경로가 .77,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 경로가 .09로 이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학교생활적응까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을 순차적으로 거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면서 자아존중감이 직접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 부모, 친구, 선생님, 이웃과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청소년이 좋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고 학교생활에 적응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적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원만한 대인관계나 사회지지가 적응적인 삶의 주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에 자기존중감과 삶의 만족이라는 요인을 투입하여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온 친밀한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이들 관계를 보다 확장하여 청소년의 삶에 있어 중요한 구심점인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직간접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좋은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고 다음의 인과구조를 확인하였다. 즉, 부모, 친구, 선생님, 이웃과의 관계로 살펴본 사회적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삶의 만족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는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부모, 친구, 교사, 이웃의 4차원의 요인들이 사회적 관계에 속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적응에 모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함의를 다음과 같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 간 관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설명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과의 구조적 관계를 재조명한 점이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가 자아존중감, 긍정적 기분, 안녕, 삶에 대한 호의적 관점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Cohen & Wills, 1985; Procidano, 1992)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 다르게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부모를 포함한 가족관련 변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Lee & Chung, 2004; Lee & Lee, 2004; Ryan, Stiller, & Lyan, 1994), 그 외에 또래 및 교우관련 변인(Mun & Kim, 1996; Ladd et al., 1996), 그리고 교사관련 변인(Bitch & Ladd, 1997; Choi & Shin, 2003; Mun, 2002), 자아존중감 변인(Do, 2008; Lim & Lee, 2007)과 관련이 있었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이전의 연구들이 학교생활적응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의 원인에 대한 관계적 접근을 시도하여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연구들을 통해 요인의 선행여부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형성은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의 인정, 관심, 지지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이웃과 지역사회 외적 지지체계(Werner & Johnson, 1999), 부모의 지지가 자기개념과 정적 상관(Plunkett, Henry, Robinson, Behnke, & Falcon, 2007)이라는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들어 본 연구모형을 지지할 수 있겠다. 특히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

사의 사회적 지원보다 부모의 지원이 삶의 만족에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Park et al., 2000),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Jeon, 1996)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과 같이 잠재변인인 사회적 관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기 관계별로 그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행복(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삶의 질 (Baumeister, Campell, Krueger, & Vohs, 2003; 2005; Diener & Diener, 1995; Leary & Baumeister, 2000; Rudnick & Kravetz, 2001; Srivastava & Beer, 2005), 주관적 안녕감(Campbell, 1981)의 예측변인이라는 결과와도 본 연구결과 흐름을 같이 한다. 이에 더해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Lim & Lee, 2007)는 결과 역시 본 연구의 모형을 지지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을 높여 학교생활 혹은 그 밖의 생활에 적응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탄탄히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고 부모, 교사, 이웃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간접적으로도 이들의 사회적 체계를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구조적 모형을 확인하면서 성별이나 학년별에 따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과도기를 겪는 존재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연구에서 행복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Diener, Suh, Lucas, & Smith, 1999; Ingelhart, 1990; Michalos, 1991) Sihm, Jeon과 Yoo(2010)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및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과 안녕에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다각도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요인들을 고민하고 다양한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향후 후속과제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가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갖고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을 평가하고 탐색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 인과적 방향성을 재고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자기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만족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는 관계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적 관계를 재검증하는 후속연구들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렇게 축적된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에 대해 보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 요인을 탐색하였으나 그 밖의 다양한 구인을 발견하거나 척도를 개발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청소년의 만족과 안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 연구(Sihn, Jeon, & Yoo, 2010)가 있다. 이는 삶의 만족, 안녕, 행복의 개념이 삶의 질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한 개념이 삶의 질을 통틀어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청소년 대상의 긍정심리학적 요소들을 측정하는 평가도구가 마련된다면, 우리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밑거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소년의 적응적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Sihn(2012)은 청소년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모형을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만족감, 친밀감, 안정

감, 의미성, 주도성, 정서성의 6요인을 추출하고 위계적 요인구조를 발견하면서 청소년의 삶의 질은 다면적 속성을 지녔으므로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의 선행관계를 밝히고 청소년의 긍정성과 적응적 삶에 주목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Baumeister, R. F., Camp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 Baumeister, R. F., Camp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5). Exploding the self-esteem myth. *Scientific American*, 292, 84-91.
- Baumgardner, S. R., & Crothers, M. K. (2009). *Positive psychology*. Prentice Hall : Pearson Education, Inc.
- Bit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ronfenbrenner, U. (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P. Moen, G. H. Elder and K. Lu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 Cha, K. H. (2001).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9(1), 7-26.

- Choi, J. E., & Shin, Y. J. (2003).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199-210.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5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51-864.
- Di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0), 81-84.
- Diener, E., Suh, M., Lucas, E.,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o, K. H. (2008). A study of father related variable influenc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5), 861-872.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Hyun, M. Y., Lee, J. E., & Park, S. N. (2003). A study on the adolescent's hop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2*, 116-123.
- Jeon, S. H., Sihm, M., & Yoo, M. S. (2011).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monitoring, self-determination,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4*(2), 73-87.
- Kim, E. J. (2007).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539-555.
- Kim, H. J., & Son, C. N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2), 345-361.
- Kim, G. S. (2010). Amos 18.0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 Hannarai academy.
- Kim, U. C., & Park, Y. S. (2004).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973-1002.
- Koo, H. Y., Park, H. S., & Jang, H. (2006).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151-158.
- Kye, S. J., Lee, J. W., Kim, M. J., Park, M. S., & Yoo, E. Y. (2001). A study on development, enforcement and evalua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2), 57-72.
- Han, M. H., & Yoo, A. J.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73-188.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1-62).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Lee, E. J. (2003). The effect of a structured group therapy on self- esteem and anger in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E., & Kwak, Y. J.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59-83.
- Lee, J. S., & Chung, H. J. (2004).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parent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3), 47-61.
- Lee, J. Y., & Lee, K. A. (2004).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61-276.
- Lee, K. A., Lee, J. Y., & Yang, H. J. (2005). The effects of bullying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6*(2), 531-543.
- Lee, M. S., & Byun, M. H. (2007). The effect of family support toward adolescents on needs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1), 61-81.
- Lim, S. K., & Lee, H. S. (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69-183.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 Some relationship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 45*(2), 177-190.
- Michalos, A. C. (1991).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 Global report on student well-being*. New York : Springer-Verlag.
- Moon, E. S., & Kim, C. H.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219-241.
- Mun, E. S.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PhD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Mun, E. S.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 in adolescenc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41*(3), 349-369.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rk, A. C. (2003).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3), 373-392.
- Park, Y. S., Kim, U. C., & Min, B. K. (2002).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 A longitudin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63-92.
- Plunkett, S. W., Henry, C. s., Robinson, L. E., Behnke, A., & Falcon, P. C. (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y, 16*, 760-772.
- Procidano, M. E. (1992). The nat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 Findings of meta-analytic studies. In C. D. Spielberger and J. N. Butler (Eds.), *Advance in personality assessment* (pp. 1-26). Hillsdale, NJ : Erlbaum.
- Rudnick, A., & Kravetz, S. (2001).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seeking to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9*(4), 258-262.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 of relation -ship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Ryff, C. D., & Singer, B. (2000). Interpersonal flourishing : A positive health agenda for the new millennium. *Personality and Social Psy-*

- chology Review*, 4, 30-44.
- Salovey, P., Rothman, A. J., Detweiler, J. B., & Steward, W. T. (2000). Emotional state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5, 110-121.
- Shek, D. T. L. (1997).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 A pioneer study in a Chinese contex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1), 113-128.
- Sihn, M. (2012). Adolescent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 Validity and Reliability Study. PhD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ihn, M., Jeon, S. H., & Yoo, M. S.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9), 131-150.
- Sihn, M., & Yoo, M. S. (2011). SEM analysis of sexual development and potential delinquency in You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2), 91-105.
- Smilansky, S. (2002). Free will, fundamental dualism, and the centrality of illusion. In R. Kane (Ed.), *The Oxford handbook of free will* (pp. 489-505). New York : Oxford Press.
- Srivastava, S., & Beer, J. S. (2005). How self-evaluations relate to being liked by others : Integrating socio-meter and attachment persp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966-977.
- Swann, W. B., Jr., Chang-Schneider, C., & McClarty, L. K. (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62, 84-94.
- Werner, E. E., & Johnson, J. L. (1999). Can we apply resilience? In M. D. Glantz and J. L. Johnson (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 Positive life adaptations* (pp. 259-268). New York : Kluwer Academic/Plenum.
- Whaley, L. F., & Wong, D. L. (1997). *Essential of pediatric nursing* (5th ed.). St. Louis : Mosby.

2011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2월 7일 수정
2012년 2월 10일 채택